

# 국방부, 진상 규명보다 제 식구 감싸기

## 5·18 특조위 최종 보고서 ‘서주석 차관 활동 군 비밀 조직 역사 왜곡 주도’ 전 특조위 조사관 “국방부 후속조치만, 권한 밖 특조위 조사 뒤엎는 검증” 진상규명 특조위 설립 취지 퇴색 지적에 서 차관 “조사 내용 사실과 달라”

국방부가 5·18 왜곡에 앞장선 조직에서 활동했던 서주석 차관을 감싸면서 5·18 진상 규명에 힘썼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조사 내용이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가 서 차관을 보호하려고 5·18 특조위의 조사 결과와 보고서 내용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3일 국방부와 김희승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에 따르면, 국방부는 “5·18 핵심 과제 규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9월11일부터 지난 2월10일까지 5·18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특조위”를 꾸려 활동했다.

특조위는 1996년 기무사가 5·18 관련 기밀자료를 모두 불태웠고, 범정부 차원의 5·18 민주화운동 왜곡 군 조직이 운영된 사실을 밝혀냈다. 김 교수가 실무를 맡았던 특조위 헬기사격 및 군 기록 조사팀은 1988년 5·18 국회청문회 대응 군 비밀 조직인 511연구위원회가 군에 불리한 내용(7공수 상황일지·자위권 발동·사격지시 등)을 수정·삭제한 사실도 규명했다. 511연구위 실무조직인 한국국방연구원원이 작성한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안)에서는 “광주시민의 시위에 맞서 군도 불가피하게 일부 과격한 진압을 했다”는 신군부 대응 논리를 확인했다. 김 교수는 511연구위 문서에서 한국국방연구원원이었던 서 차관의 이름과 역할(문안 검토·발표문 작성)을 확인한 뒤 지난해 11월 대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서 차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 교수는 두 차례 국방연구원을 찾아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국방연구원 연구관의 공적조사에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 등 6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11연구위 내부 회의 자료에서도 ‘국방연구원 명의 보고서’가 확인됐다. 김 교수는 이 내용을 5·18 특조위 보고서 초안에 기록했지만 특조위 최종 보고서에는 서 차관이 익명 처리되고 조사 내용 등이 빠졌다. 보고서 발간 직후 서 차관의 해명 과정 또한 비호 논란이 일고 있

다. 국방부는 5·18 특조위 활동 종료 뒤 ‘관련 자료 정리와 이관’을 목적으로 군인으로 구성된 특조위 후속조치반을 운영했는데, 취지와 달리 511연구 자료를 검증해 분석 자료를 퍼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실제 서 차관은 지난해 10월 5·18 기념재단을 찾아 후속조치반 검증 자료를 인용해 5월 단체에 해명했다. 서 차관은 “511연구위원회(1988년 5월11일)보다 앞서 꾸러진 ‘육군 80대책위원회(1988년 2월16일)’가 왜곡을 주도했고, 조작 문건 또한 511연구 이전에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속해있던 511연구원은 왜곡 책임이 덜하며 특조위 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김 교수는 국방부가 특조위 조사 결과까지 뒤엎으며 역사 왜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서 차관의 해명 논리를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서 차관에게 후속조치반의 문제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김 교수는 “후속조치반이 권한을 넘어 서 차관 입장에 부합한 논리를

민든 것은 특조위 결의로 채택한 최종 보고서 내용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차관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5·18 특조위 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며 “이는 특조위 취지와 조사 내용을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후속조치반의 511연구위원회 관련 문건에 대한 정리와 검토는 5월 단체의 해명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5월 단체의 요구로 자료를 본 것이지 검증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특조위 보고서에서 511연구위원회와 국방연구원이 왜곡을 주도한 것처럼 기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5·18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임무를 가져왔고, 향후 특별법에 따른 조사단이 꾸러지면 국방부 차원에서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잡초제거, 국화도 봄 맞이 서울의 한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잔디밭에서 국화 관계자들이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

## 광주소방본부, 청명·한식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3일 청명과 한식을 맞아 소화나 소화행위 등으로 인한 산림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일부터 7일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4월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이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인력 2400여명과 장비 23대를 동원해 국립공원, 공원묘지, 주요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산불예방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원묘지나 등산로 등 성묘객과 상춘객들이 몰리는 지역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해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불 등 화재 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공조체거나 소방헬기 긴급출동 대응 등에도 민첩을 기할 예정이다. 김조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산불이나 임야화재는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소중한 인명과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원룸서 40대 흥기 찢려 숨진 채 발견

광주시 한 원룸에서 40대가 흥기에 찢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에 광주 한 원룸에서 A(4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친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친구는 경찰에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체 일부가 흥기에 찢린 흔적이 있었으며 주변에 흥기가 놓여 있었다. A씨가 지난 1일 지인과 통화한 뒤 외부 출입 정황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생황고에 시달리던 A씨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왔다”는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 병원서 상습 행패 40대 주폭 영장

광주 광산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병원 침문을 무단으로 넘어 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입원 문제로 병원과 가족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치료비를 가족이 주지 않아 입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근 3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로 이 병원을 찾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해당 병원서 상습 행패를 부린 점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목졸라 숨지게 한 30대 男

헤어진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께 화성시 팔탄면의 한 커피 제조공장 여자 기숙사에서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 B(25)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헤어진 B씨를 만나러 갔다가 B씨가 소리를 지르며 계속 만나기를 거부하자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드론동호회에서 만나 사귀던 사이였다. 회사 관계자는 2일 오후 숨진 B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회사 CCTV 등을 통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A씨의 행적을 뒤쫓았다. 이후 경찰은 A씨가 경북 울진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 3일 오전 6시 30분께 울진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B씨에게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현금인출기 통째로 훔치려던 40대 구속

길거리에서 훔친 트럭으로 마트 앞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통째로 훔치려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42)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8일 오전 4시20분께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은행공동 현금인출기(ATM)를 훔친 트럭에 싣고 30여m를 가다가 도로 한복판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무 등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오다 트럭을 훔친 뒤 인적이 드문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발견하고 도구를 이용해 고정장치를 풀 뒤 이를 트럭에 싣고 훔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금인출기가 1m80cm 높이 인데다 A씨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 때문에 트럭에 제대로 싣지 못하고 달아나다 도로 한복판에 떨어뜨린 채 현장에서 도주했다. 현금인출기 안에 현금 25만원은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